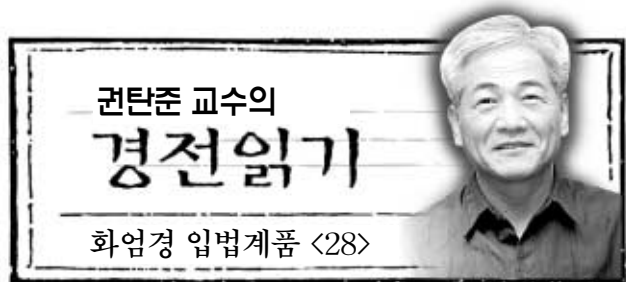


선재동자는 비록사나 선인으로부터 남쪽 이사나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승열(勝熱) 바라문에게 가서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사나 마을에 이르러 보니 승열 바라문은 여러가지 고행을 닦으며 온갖 지혜를 구하고 있었다. 사면에는 큰 산과 같은 불 무더기가 있고, 그 속에 놓고 가파른 칼산(刀山)이 있는데, 승열 바라문이 그 산위에 올라가서 불 무더기에 몸을 던지는 것이었다.

선재동자가 그에게 예배하고 나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승열 바라문은 이렇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가 만일 이 칼산 위에 올라가서 저 불 무더기에 몸을 던지면 모든 보살행이 모두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선재동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불법을 듣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법을 따라 행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마귀 혹은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닌가. 마귀의 험악한 무리들이 보살이나 선지식의 모양을 꾸며 보이면서, 나에게 선근을 심기를 어렵게 하고, 목숨을 지키기를 어렵게 해서 내가 모든 지혜의 도(道)를 닦는 것을 장애하고 나의 불법을 막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범천·마군(魔軍)·자재천왕·아차왕 등 열세 가지 대중이 공중에서 자신들이 제각기 승열 바라문의 교화를 받았음을 밝히고 그의 덕을 찬탄하고 선재동자에게 의심을 내지 말라고 권하였다. 선재동자는 이러한 법문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승열 바라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거룩한 선지식에 좋지 못한 마음을 내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28>

승열 바라문의 법문

구도생활의 어려움 칼산에 비유 아만심 버리는 결단서 삼매 열려

있던 것을 참회하고, 그것을 받아주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승열 바라문은 선재동자에게 계승으로써 말하였다. '보살이 누구든지 선지식의 가르침을 순종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사람들은 광대한 이익을 얻으니 보리수 아래 앉아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 계승을 듣고 나서 선재동자는 즉시 칼산에 올라가서 불 무더기에 몸을 던졌다. 선재동자는 내려가는 중간에서 보살의 잘 머무는 삼매(善住三昧)를 얻었고, 몸이 불꽃에 닿자 보살의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삼매(寂靜樂通三昧)를 얻었다.

이때 승열 바라문이 선재동자에게 말하

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다함이 없는 법륜(無盡輪)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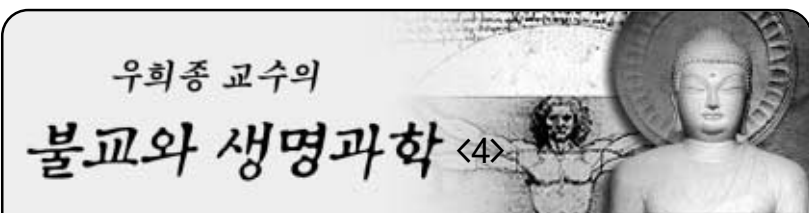
이는 선재동자가 선지식으로부터 상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처음에 승열 바라문의 가르침을 듣고 의혹을 품게 된 것은 지혜의 눈을 가지고 상대의 근기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베푸는 선지식의 지도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대하였기 때문이다.

구도의 태도는 훌륭한 스승인 선지식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자신과 관련된 일체의 것을 버리고 선지식의 가르침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도 기꺼이 따른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선지식이 고행을 하는 외도(外道)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칼산(刀山)에 올라가서 불 무더기에 뛰어내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구도생활이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구도생활에서 진정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며 버리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만심(我慢心)과 미혹한 자기나를대로의 생각인 것이다.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펼쳐 버리기가 그야말로 험준한 칼산에 오르고 불 무더기에 몸을 던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웅맹스러운 결단이 필요하다. 칼산에 올라서 불 무더기 속으로 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웅맹스러운 결심을 일으켜 아만심과 미혹한 분별망상을 반야의 지혜의 불꽃으로 태워 버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선지식의 가르침에 순응하여 결심하고 칼산에 올라 불 무더기에 몸을 던졌을 때, 내려가는 중간에 이미 보살의 신주삼매를 얻고, 불꽃에 몸이 닿자 보살의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의 세계는 미혹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진실한 가르침에 따라서 결심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우회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

앞·뒤가 없는 윤회

조금만 다쳐도 비명을 지르고 매일 닭고기를 먹는 우리 몸은 사실 하루에도 수많은 양의 세포가 죽어 배설되기도 하고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된 세포들이 스스로 자살하여 제거되어 없어지기도 한다. 또한 우리 몸의 안팎은 정상세균총이라는 세균 덩어리로 뒤덮여 있어서 이들과 더불어 공생하고 있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이 정상 세균들은 나라는 속주가 (물론 나에게는 이러한 미생물이 없으면 죽음에 이르게 이러한 미생물이 나의 속주라고 볼 수도 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즉시 나를 파괴하고 새로운 터전을 향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간다. 이러한 예는 예이즈

있다는 점에서 생물체와 다를 바 없다. 열역학적으로도 이 세상에 폐쇄계가 존재할 수는 없으며 주위와 관계를 맺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에 밥과 고기를 먹어 내가 유지된다면 그 밥과 고기가 내가 된 것이요, 내 몸의 세포가 배설되어 미생물에게 활용된다면 내 몸이 미생물이 된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햇빛이 내 몸을 일부가 되고, 땅에 핀 채소 한 포기나 내가 되고 있으며, 들숨으로 공기 중의 산소가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날숨으로 내 몸속의 수분이 공기 중에 나아가기도 되고 흙을 키우기도 한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윤회이자 앞뒤 없는 진정한 윤회인 것이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들뜬다든

먹고 배설하는 것·숨쉬기도 윤회 마음자리에 따라 끊임없이 진행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결국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건강할 때는 암전했던 이러한 정상 미생물들의 공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들만 때도 잘 나타나 있다.

또 우리는 잠깐이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고,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산소 뿐만 아니라 음식과 물을 공급받고 배설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듯 나 하나로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만 그 존재가 유지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는 이러한 개방체계(open system)인 것이다. 무생물도 환경과 주고받는 그 시간의 진행 속도가 우리의 인식 속도와는 다르기에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개방되어

을 바라보아도 어떤 이는 욕심으로 그 꽃을 어떻게 해서라도 꺾어 자기 집에 가져갈 생각을 한다면 제 욕심만 차리는 축생의 자리에 이미 떨어진 것이지만, 그 꽃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행복한 마음을 지닌다면 이미 그 순간의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 있는 것이다. 내 마음 자리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육도 윤회를 동시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굳이 말하여 중음(中陰) 등을 거쳐 윤회를 거듭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실제 없이 허망한 집착심이며, 이러한 나라는 한 생각에 잡혀 있는 이상 그것에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는 앞과 뒤가 있으니 어찌 끊임없는 윤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석학교실



선의 세계 ①

불교와 선

각될 수도 있겠다. 선학(禪學)의 거두(巨頭)인 일본 하나조노(花園) 대학의 야나기 다세이잔(柳田聖山)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선종은 그 사상의 형성에 체계적인 입장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불교사상 전부를 선의 사상이라고 볼

것이다. 그 사정을 캐보면 지금 한국불교의 주류가 되어 있는 선종의 수행과 사상 등 이모저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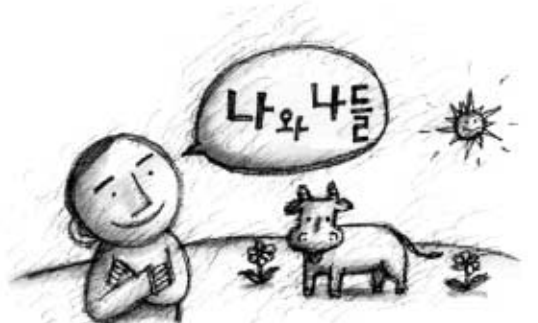
그 사정을 캐기 위해서는 선종의 역사를 더듬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일 터이다.

왜 '직지인심·견성성불' 일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종의 교리를 캐보면 은둔 중관(中觀), 유식(唯識), 천대(天台), 화엄(華嚴) 등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선종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것은 불교사상일지언정 선사상은 아니라고 하는 아이러니컬한 면이 있음을 야기하는 지적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사정이 있게 마련이니 거기에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그러나 여기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즉, 수행이나 깨침과 관련해서 선종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점들에 주목하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이 남들 보기에 어느 사람들도 이미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사람들과 같은 행동과 말이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유난히 강조하는가가 그 '다름'의 명분이 될 수도



佛經漢文科

통신반·출강반 募集

- 募集期間
 - 후기: 7월 5일~8월 15일(기간연수)
- 募集學科
 - 佛經漢文科(漢字문법)
- 教育科目
 - 무량의경(漢文本)
 - 묘법연화경(漢文本)
 - 관·보현보살행법경(漢文本)
 - 교양과목(생활한문, 영어회화)
- 教育期間
 - 3년(6학기)
 - 통신반·출강반 동일
-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통신반)
 - 월 1회 출석특강(통신반)
 - 출강반은 주 1회 출석(대구·부산지역)
- 畢業惠澤
 - 畢業證書 수여
 - 전문 연구과정 입학자격 부여
- TEL 053)952-8711, 017-501-8711

※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國際語文研究所

所長·哲學博士 崔光永

대구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동대구빌딩 3층)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인 업장 덩어리를 녹이며!

주말수행 체험 이야기

- 중단전차크라 (가슴명치) 막힌 자욱 덩어리를 시원하게 풀어주며 일주일간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신비로운 도인계조를 단 한번으로 배우고!!!
- 독경염불 의 돌출시 가슴과 어깨를 들먹거리고 자제 불망으로 거꾸로 호흡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바른자세와 호흡법, 운율법을 배워 진정한 수행과 행복이 시작된다.
- 자중단전호흡은 참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 수행으로, 수행 자리엔 누구나 배워야 할 단전호흡이 일체 무리없이 저절로 되어 일할때나, 율때나, 잠잘때 그대로 적용되어 생활 禪이 절로 됩니다.
- 와 선 단 20분의 투자로 세상 살맛이 난다. 즉석에서 완전한 이완과 에너지 증진의 확실한 체험을 하게되며 초종초종 빛나는 두눈이 와선의 전가를 말해준다.
- 행 선 복잡한 머리가 상쾌하고 맑아지며, 갇혀 있던 어깨가 가벼워 진다.
- 업장소멸진침회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업장을 지우고 부처님께 바친다.
- 호흡에 맞춰서 절하는법 숨차지 않고, 험한거리지 않고, 맥박이 빨라 지지 않는 호흡에 맞추어 절하는 법을 배워 완전한 수행화장이 된다.
- 소신리의 정상(출세종)에 올라 출세를 다짐하며!!!!
- 수련일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12시, 12시취침 - 일요일: 아침 5~10시(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3333배 절아침합니다)
- 준비물: 간편한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절을 기차에 갈아타는 법 알고 올것.

백만불자 108배 만일절사 수행중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http://cafe.daum.net/sorisan

오시는길: 상봉터미널 - 청평댐 - 설악면 - 모곡중점 하차 전화요
동서울 상봉터미널 - 양평 - 용문 - 단월 하차 전화요
*자카용: 양평에서 흥천방향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탈리까지 입구에서 청평 방면으로 6km 지점 - 석산주유소앞 - 소향산장 - 법왕정사

당신에게 행운을...

만약 들어 올린제품

지혜·희망·입격·행운을 그대에게....

본계통은 원통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는 경명주사 부처의 자수원 계통입니다.

경명주사 부처는 옛날부터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영원히 기(氣)가 형출되어 심신을 안정케 하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취급 품목

-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 가정화목의 카페트, 밝은경신의 베게
-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로...
-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 부모님에게 효도의 선물로...
-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전국지사 대리점

www.bu.juk.shop.com

천문정사 복지원 문의: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블로동 매장 053)986-1354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관절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쭈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패혈질환자 임산부, 음주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민속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